

우리에게는 위대한 어머니가 계신다

《공화국에는 이 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아름다운 어머니들이 없지 않다. 처녀어머니, 모성영웅어머니, 박사어머니, 방직공영웅어머니... 이 훌륭한 어머니들에게는 그들을 품어 키워낸 위대한 어머니가 계신다.》

몇해전 공화국에서 열렸던 제4차 전국어머니대회를 보고 해외동포녀성이 쓴 글의 한 대목이다.

훌륭한 어머니들의 위대한 어머니.

그 위대한 어머니는 과연 어떤분이신가.

여기에 누가누가 즐겨 부르는 한편의 노래가 있다.

... 어머니께 삼가 드릴 꽃송이 역으려니 손닿도록 쓰다듬어주며 키운 정 사무침니다 비바람 불수록 날이 찼수록 께안아주시 때 눈비에 얼어든 어머니웃자락 왜 그리 따스했더니

심장을 불태워 날 안아 키워준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

노래 《어머니를 사랑합니다》의 가사이다.

이 가사를 쓴 40대 초반의 교육자 최남순교수는 훌륭한 가사를 써내려간 동기를 알고싶어 찾아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이 노래는 나의 어머니가 아니라 우리 온 나라 가정의 위대한 어머니께 드리는 송가입니다.》

이렇게 서두를 뎨 그는 그 위대한 어머니, 우리 당이 있어 자신은 청춘의 꿈이 꽃피기 시작한 20대 초반에 어머니를 잃었지만 지금까지 어머니없는 설움이 무엇인지 모르고 산다고 하였다.

최남순교수의 생활에는 구석구석 어머니의 따뜻한 온기가 스며있었다.

몇달전 황홀한 다락주자극구인 경주동에 삶의 보금자리를 편 그의 세집은 호화스러웠다.

찬양에는 색깔고운 그릇들이 가득차있고 넓고 정교한 방들마다에는 새 가구와 생활용품들이 고즈넉하게 갖추어져있었다.

최남순교수는 이 모든것은 다 위대한 어머니가 나에게 주신것이라고, 그래서 찬양의 그릇까지 하나를 보아도 그 어머니의 모습이 우뚝히 어려와 눈물을 적시곤

한다고 말하였다.

인생의 첫걸음을 떼어준 어머니는 일찍 길을 떠나갔지만 위대한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은 자기를 인생의 최절정에까지 이끌어주었다고 그는 격정에 넘쳐 말하였다.

참으로 그러했다. 위대한 어머니 품, 당의 따스로운 품에서 그는 30대에는 박사로, 40대에는 교수로 자라났으며 지금은 최우수교원의 한사람으로 만사람의 축복을 받으며 살고있다.

《나도 엄마처럼 훌륭한 사람이 될래요.》

귀뎡이 딸애의 두볼을 다독여주며 최남순교수는 말하였다.

《너는 꼭 훌륭하게 자랄거다. 위대한 어머니의 품에 생을 둔 자식은 누구든 다 엄마처럼 된단다.》

의미심장하게 말하는 그의 얼굴에는 한없는 격정이 어려있었다.

위대한 어머니의 품속에서 값높은 삶을 누리고있는 사람은 최남순교수만이 아니다.

유복녀로 태어나 처녀시절에 어머니를 잃은 평범한 직공품 공장 순녀정.

그는 위대한 어머니, 조선로동당의 품속에서 영웅으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자라났으며 오

늘은 온 나라가 다 아는 시대의 전형으로 떠받들려오고있다.

수도의 한복판에 웅장한 건축군을 이룬 창천거리의 멋진 새집을 받아안고 행복에 겨워 잠 못이룰 때 문강순영웅의 머리속에 제일먼저 떠오른것은 어머니의 얼굴이었다고 한다.

나의 이 행복한 모습을 어머니가 본다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데 이제 그의 속마음을 헤아리신듯 경애하는 김정원수님께서는 신혼살림을 편 그의 집에 찾아오신 것이었다.

딸의 집에 찾아온 친정어머니 처럼 방바닥에 허물없이 앉아서 결혼식을 하고 2개월만에 새집을 받았다는 신혼부부의 이야기를 즐겁게 들어주시며 신혼생활이 재미있는가, 앞으로 자식은 몇명이나 낳으려고 하는가고 정을 담아 물어주실 때 영웅은 어깨를 들먹이며 오열을 터뜨렸다.

그날 몹소 사랑의 축배잔까지 부어주신 자애로운 어머니.

경애하는 그녀의 따뜻한 사랑이 그대로 어린 새집들이선물을 쓸어보내고 또 쓸어보며 그는 마음속으로 웨치었다고 한다.

《나에게는 위대한 어머니가

계신다!》

이것이 어찌 그 하나만의 심정이라고 하랴.

위대한 어머니의 품에 안겨사는 이 나라 인민모두의 한결같은 심정의 분출이다.

백발의 로교수 김초심선생의 삶도 그것을 잘 말해준다.

김광수, 조금화, 전해영, 리분희, 김유주 등 공화국인민이 사랑하는 유명한 독창가수들을 많이 키워낸 그의 나이는 어언 90살이다.

볼비쏘아지는 화선지에서 입은 락박상의 후파로 것처럼 사랑했던 예술무대를 떠나지 않으면 안되었을 때 나라의 성악인재후비들을 키우는 교단에 그를 세워준 따뜻한 손길, 그 손길은 인생의 황혼기까지 진함을 모르는 생의 활력을 부여주고있는 우리 당의 은정넘친 손길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전국로병대회와 제14차 전국교원대회의 뜻깊은 자리에도 그를 대표로 불러주시고 영광의 기념사진도 찍어주시었다.

환호하는 정쟁로병들속에서 김초심선생을 알아보시고 그의 두손을 뜨겁게 잡아주시며 건강하라고 거듭거듭 정경이 당부하시

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러 그는 그때 마음속에 뚫어넘치는 격정을 터치었다.

《원수님, 원수님은 우리모두에게 지킬줄 모르는 생을 주시는 위대한 어머니입니다!》

위대한 어머니, 조선로동당의 품에 죽어서도 빛나는 삶을 안겨주는 영생의 품이다.

지금도 못잊을 5월에 인민의 추억속에 강렬하게 새겨진 또 하나의 숭엄한 화폭이 떠오른다.

조국과 혁명을 위한 길에 불멸의 공훈을 세운 현철해 국방성 총고문과 영결하던 그날 직접 교인의 형구를 메시고 국가장의식장을 나서시던 경애하는 원수님.

죽어도 잊지 않는 영생의 순결을 부어주시듯 교인의 유해우에 자신의 손으로 한층한층 흙을 얹어주시고 견실한 혁명가를 잃은 크나큰 상실의 아픔을 진정 참을길 없으시어 그의 묘비를 쓰다듬고 또 쓰다듬으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영상을 우러리며 인민은 만물에 생을 주는 태양의 열을 지니신 위대한 어머니가 있어 당중앙트락에 운명의 피를 이은 이 나라의 천만자식들의 삶은 영원히 빛난다는것을 눈물속에 더

깊이 절감하였다.

인민들에게 있어서 령도자이시기 전에 위대한 인간이시고 사려깊은 위대한 어머니이신 경애하는 원수님.

언제나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고 받드시며 인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신신의 길을 걷고 또 걸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인민은 《자애로운 어머니》, 《위대한 어머니》로 부르며 따른다.

《우리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를 사랑합니다》를 비롯하여 인민이 심장으로 터치는 시대의 명곡들, 령도자를 어머니라 부르며 따르는 천만자식의 고백들이 그것을 잘 말해준다.

뜻깊은 어머니날을 맞으며 이 나라의 어머니들을 비롯한 천만 자식들은 위대한 어머니를 우러러 다함없는 효모의 노래, 심장의 목소리를 다시금 터친다.

... 어머니 어머니 영원히 영원히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본사기자 리경월



사랑받아 지어주신 이름들

《 옥류 아동병원 》

어머니날을 제정해주시어

11월 16일은 어머니날이다. 해마다 이날이 오면 가정의 화목과 행복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고 자식들을 훌륭히 키워 나라앞에 몇몇이 내세우며 사회주의강국건설에 참담게 이바지하는 온 나라 어머니들에 대한 존경과 사랑이 이 땅 그 어디에나 뜨겁게 흘러넘치곤 한다.

어머니날을 맞으며 축하공연들이 중앙과 지방에서 다채롭게 진행되어 어머니들을 기쁘게 해주었다.

공화국인민들 누구나 즐겨맞는 이날에도 가슴뜨거운 사연이 있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주체50(1961)년 11월 16일 제1차 전국어머니대회에서

평양시의 문수지구에는 옥류아동병원이 자리잡고있다.

옥류아동병원은 평양산원앞에 건설된것으로 하여 마치도 두팔 벌린 어머니의 품으로 행복에 넘쳐 아장아장 걸어오는 아기의 모습을 린상케 한다.

병원의 외부도 특색있지만 내부는 아이들의 동심에 맞게 꾸러진것으로 하여 치료를 받으려고 온 아이들이 발길을 떼지 못하여 어머니들이 《행복한 걱정》으로 맘을 빼야 한다.

바로 이곳에는 온 나라 어머니들의 마음을 헤아리시어 병원의 이름으로부터 시작하여 건설과 운영문제에까지 깊이 마음써주신 경애하는 김정원수님의 열화같은 후대사랑이 깃들었다.

주체102(2013)년 1월초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아동병원을 지을 자리를 평양산원주변에 잠들대 대해 말씀하시면서 설계를 아동병원만이 나게, 어린이들의 동심에 맞게 할대 대하여 강조하시었다.

그해 7월 장마비가 억수로 내리는 날에 병원건설장을 찾아주시신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아동병원은 어린이들을 위하여 당에서

임원한 어린이들은 병력서에만 이름이 오르는것이 아니라 병원에 꾸러진 이 교실들의 출석부에도 동시에 이름이 오르게 된다.

그 어디이건 학교가 아이들을 찾아다니는 공화국의 훌륭한 교육제도를 보여주는 이곳에서 아이들은 마음껏 병치로도 받고 교육도 동시에 받고있는것이다.

조국의 창창한 미래를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낌없이 바치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헌신과 로고에 떠받들려 옥류아동병원은 아이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사랑의 집으로 우뚝 솟아있다.

리남철

어머니날에 찾으신 수산사업소

주체105(2016)년 11월 16일 경애하는 김정원수님께서는 5월27일수산사업소를 찾으시었다.

그날은 어머니날이어서 온 나라 어머니들이 자식들에게서 존경과 감사의 꽃다발을 받으며 기쁨에 겨워하고 초소의 병사들도 교향하는 어머니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드리고있던 날이였다.

바로 그날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물고기대풍이 든 이 사업소에 찾아오신것이였다.

일군들모두가 설레이는 마음을 안고 그이를 따라서는 데 혁명사적교양실과 문화회관을 거쳐 야외화투장에 이리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는 밤금 부두에 와닿은 사업소의 어느한 고기배에 몸을 오르시었다.

일군들은 서둘러 그이를 따라섰다.

선창에서 도루메기를 퍼올리는 작업모습도 보여주시고 화투장에서 물고기목포 쏘아지는 광경도 기쁨속에 바라보시던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인민군대 수산부대에서 현재까지 많은 물고기를 잡은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면서 자신께서는 오늘 아침 그 보고를 받

수필 강물무에 비낀 두 제도

저거리와 창천거리의 초고층아파트들, 현대미를 자랑하며 멋들어진 일떠선 평양대동강수산물시장, 특색있는 모양의 과학기술전당과 옥류관이며 류경원, 인민 야외빙상장의 독특한 모습도 한말 엉뚱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말 그럴듯한 말이였다.

그런가 하면 밤길도둑 인민들의 행복넘친 물결이 끓끓졸졸 흐르는 룡라인민유원지와 종합봉사선《무지개》호도 대동강물결위에

니 언젠가 어드난 출판물에 실렸던 남조선의 한강에 대한 기사가 문득 떠올랐다.

남조선의 한강에는 《자살에방다리》라는것이 있다고 한다.

절망과 비판속에 생의 막바지에서 해메이다가 불행과 고통을 더는 건달수 없이 삶을 포기한 사람들이 찾는 곳이 바로 한강이라고 한다.

다리우에서 깊은 한강물속에 몸을 던져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미껴이다.

정령 대동강은 자기의 기수를 따라 졸비하게 일떠선 기념비적창조물들과 행복넘친 인민의 모습이 출렁이는 평양의 자랑 대동강!

푸른 물결위에 떠가는 돛배마냥 특색있게 솟아오른 미래과학

것이며 근로대중에게 있어서 그것은 그림의 벽에 불과한것이다.

대동강과 한강의 물결이 사진처럼 또렷이 새긴 판이한 두 현실

대동강에 비낀것이 인민대중이 주된원 사회주의제도의 진보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축도라면 한강에 비낀것은 자본주의의 부패성과 몰락의 필연성을 생동하게 보여주는 자화상이다.

가슴 벅차오르는 흥분속에 대동강의 푸른 물결을 바라보는 나의 귀전에 유정한 물결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오는듯싶었다.

어떤 사회제도인가에 따라 무심한 물결도 행복한 모습만을 담아가는 《사진기》로 또는 불행한 모습만을 펼쳐보이는 《투영기》로도 될수 있다고.

나는 대동강 푸른 물결에 자기의 행복한 모습을 사진처럼 담아보느라 여념이 없는 손자, 손녀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또 보았다.

박성일

온 나라 어머니날을 행복의 절정에 세워주시어

본사기자